

네코노아나 ~배빵지옥 5-2화 -한국어

퍼억!



“크윽!”

“아토미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직격! 지금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던 히메카와 선수였지만 여기서 꺾이고 마는 것인가!”

“링의 아이돌이라고? 난 너 같이 얼굴 밟고 나대는 년들이 제일 짜증난다고!”

늦은 저녁. 선내에서 열린 지하투기시합을 오리에가 이노리를 대동하고 관전하고 있었다.

“히메카와씨가 불리해보이네요.”

불리하다고? 언뜻보기에 얻어맞고 있는 쪽은 분명 유메미였다. 하지만...

“이상해. 멧자국이 늘고 있는건 상대편 쪽이잖아.”

“...슬리핑 어웨이.”

이노리가 나지막히 내뱉은 한마디에 설명을 구하듯 오리에가 이노리를 돌아본다.

“아마도 히메카와씨는 펀치에 맞기 직전 머리를 회전시켜 충격을 흘리고 있어요. 의식해서 쓰고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상당한 동체시력 이군요.”

그 때 유메미를 몰아붙이던 상대선수가 유메미의 발에 발이 걸려 팔사나운 모습으로 고꾸라진다.

“어이쿠! 시합 중 발을 헛디디다니. 아토미 선수, 너무 흥분하고만 것인가!”

“설 수 있겠어요?”

멀리서 보기엔 넘어진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패어난 모습이었지만 유메미의 얼굴은 명백하게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이년...!”

유메미의 도발에 바짝 약이 오른 상대선수가 레프리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히메카와의 손을 뿌리치고 다짜고짜 주먹을 날린다.

퍼억!

“아토미 선수! 히메카와 선수의 손을 뿌리치고 더티플레이로 응수한다!”

“저, 저런 비열한...! 국보나 다름없는 유메미짱의 얼굴에 무슨짓을...! 모두들 그건 챙겨왔겠지!”

링 바깥에서 경기를 관전하던 오타쿠 무리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지시를 내리자 5~6명 쯤의 추종자들이 백팩에서 응원봉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든다.

“우오오! 유메미짱에게 모두의 힘을 나눠주는거야!”

그들의 응원이 닿는지 어떤지는 재쳐두고 상대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던 유메미가 쓰러지듯 로프에 몸을 걸친다.

“이걸로 마무리다!”

상대선수가 마무리를 짓기위해 유메미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유메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롱 트윈을 휘둘러 츠지무라의 눈을 공격한다. 마주 보는 척 우연을 가장한 반칙기였다.

“누, 눈이...! 부게에에엑!!”

어느샌가 유메미의 보디가 상대방 아랫배 깊숙히 박혀 내장을 유린하고 있었다.

“안됐지만 이걸로 타임오버.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야!”

시야를 잃고 주먹을 뿔뿔 휘두르지만 그런 눈먼 펀치는 필요 이상의 화려한 스텝을 밟는 유메미를 띄워주기만할 뿐이었다.

퍽! 퍼억! 빠각!



퍼어어억!

“구헤엑!!”

“돌아가시는 겁니까?”

이노리의 물음에도 오리에는 더 이상 볼일이 없다는 듯 객석을 떠난다.

“더 볼 필요도 없잖아. 이 이상은 시간낭비일뿐이야.”

어느샌가 사람들이 올라와 피떡이 된 상대선수를 들것에 싣고 있었고, 관객들의 함성과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유메미의 완벽한 승리에 찬사를 보내고있었다.

시합이 끝나고 유메미의 대기실 앞에는 아까의 오타쿠무리들이 모여있었다.

"우리들 유메미짱이 이길거라 믿고 있었다구!"

"소, 소인의 응원. 유메미짱에게 전해졌을까나?"

"모두들 언제나 응원하러 와줘서 고마워. 모두의 응원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유메미 힘낼 수 있었어."

"유메미짱 이겨, 오늘 유메미짱의 생일을 맞아 약속하지만 소인들이 준비한 것이오."

리더로 보이는 남자를 필두로 각자 가지고 온 값비싸보이는 선물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들이 가지고 온 명품 브랜드의 선물들은 본인들이 입고 있는 싸구려 옷들과 비교해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었다.

"정말 마음만으로도 기쁘데 다들 무리하고 있는거 아냐?"

"여기서 유메미짱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오. 아이돌 복귀까지 앞으로 1 승. 우린 응원밖에 할 수 있는게 없지만 부디 힘내주길바라오!"

"모두들... 아이돌로 복귀하더라도 여기서 모두가 응원해준 일들, 유메미는 평생 잊지 않을거야."

눈물을 글썽이는 유메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오타쿠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다.

"우오웃! 유메미짱 정말 좋아한다고!"

...

..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유메미가 세면대에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손을 박박 씻고있다.

"음, 썩은내... 멍청한 오타쿠들! 남의 손을 만질거면 좀 씻고오던가!"

세면을 마친 유메미가 다시 대기실로 들어오자 오전에 오리에를 린치했던 유메미의 졸따구들이 오타쿠들이 가져왔던 선물을 뒤적이고 있었다.

"카핫! 오늘도 대어야, 대어!"

"니들 남의 전리품에 먼저 손대기 있거냐?"

"그냥 만져본 것 뿐이라니까. 그치만 정말 멍청한 족속들이라니까 저들이 ATM 인것도 모르고 이런 물건까지 꼬박꼬박 갖다바치고."

"이 귀걸이 진주 크기 대박. 겁나 비싼거 아냐?"

"촌스러! 난 필요없으니 네들이나 나눠가지던가?"

유메미가 진주귀걸이를 땅에 버리듯 내팽기치자 툭마니들이 달려들어 서로 물어죽일듯한 기세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한다.

"비켜! 달라고한건 나잖아!"

"이 쌍년아! 먼저 주운건 내쪽이잖아!"

툭마니들이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가지고 물어뜯듯이 싸우는 사이 유메미가 대기실을 나와 담배에 불을 붙인다.

'흠, 이놈이고 저놈이고 골빈 멍청이들뿐. 나한테 어울리는건 역시 그 사람밖에 없어.'

"히메카와씨? 면회요청이 있어요."

유메미를 찾아 대기실을 찾아온 관계자의 부름에 유메미가 짜증섞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이번엔 누구데요?"

"카즈히로라는 분으로부터예요."

'왔다!'

화색이 돌아온 유메미가 헐레벌떡 면회실로 향한다.

고급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찾아온 남자는 약간 어리숙해보이는 도련님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상당한 미청년이였다.

"카즈히로씨!"

"유메미! 맏소사. 내 천사의 얼굴이...! 그동안 자신들의 빛 때문에 널 이런 곳에 밀어넣은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 나도 마찬가지로. 아버진 내 말 같은건 전혀 듣지 않아. 가능하면 당장이라도 널 꺼내주고 싶었지만 내 힘이 이것밖에 안되서 오히려 미안해. 내가 아버지만큼의 힘만 있었어도..."

"아냐 그렇지 않아. 카즈히로씨에겐 이미 분에 넘치는걸 잔뜩 받아버렸는걸. 힘들었지만... 나 카즈히로씨를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널 내 전속사용인으로 들게. 왓, 물론! 널 계속 사용인으로 들 생각은 없어! 유메미에게는 아이돌로써의 꿈이 있는걸. 그리고 언젠가는...!"

"카즈히로씨...!"

앞으로 1 시험만 이기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제부터 있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유메미의 가슴은 크게 부풀어있었다.

...

..

때가 되어 유메미에게 있어 마지막 일전의 때가 왔다. 서로의 운명을 걸고 두 지하의 고양이와 링 위에서 마주한다.

"마지막 상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 나오나했더니 전 선배잖아요? 또 쓰레기통에 쳐박히러 오신거예요?"

"너 전에 말했지? 여기서 이기면 졸업이라고. 그렇다는건 여기서 지면 유급이란거네?"

"그렇습디다만 당신 실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예요? 그나저나 전 선배를 마지막 상대로 지정한 그 매니저씨도 정말 멍청하네요. 아니면 선배가 그 여자한테 엄청 미운털 박힌건가?"

"흠, 선배를 너무 깔보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알려주지!"

깡-!

퍼억!!



"어이쿠, 개전과 동시 크로스카운터다!"

'큅! 이, 이녀석...!'

오리에를 깔보고 있던 유메미는 예상 이상의 무거운 펀치에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링의 아이들이라고? 오늘 네 그 가면을 벗겨서 쓰레기통에 쳐박아주지!"